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대선 불확실성 속 증시 약세, 에너지는 강세

Key Takeaways

- 미국 주요 지수 전체 하락, 다우 가장 큰 하락폭 -0.6%
- 美 대선 앞두고 증시 불확실성 확대
- 제조업체 신규 주문 -0.5% 하락, 미국 제조업 약세 지속

Summary

미 증시는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하락세를 보였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0.61% 하락한 41,794.60에 마감하며 주요 지수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함. S&P 500 지수는 0.28%, 나스닥 종합지수는 0.33% 각각 하락하여, 각각 5,712.69와 18,179.98에 거래를 마쳤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유일하게 상승하여 0.38% 오른 2,218.61에 마감함. 최근 발표된 미국 제조업체의 신규 주문은 0.5% 감소하며, 연속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미국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경제 지표는 미국 경제의 확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증시 전반의 불확실성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초박빙의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며, 이는 높은 변동성을 초래함. 특히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경합주 경쟁이 극심해, 투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관세 정책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향후 경제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신중한 투자 전략을 고민 중임. (다우 -0.61%, 나스닥 -0.33%, S&P500 -0.28%, 러셀2000 +0.38%)

특징종목

Nvidia(+0.5%)는 SK Hynix로부터 AI 시장의 수요 증가에 맞추어 HBM4 칩을 조기에 공급받겠다는 소식으로 인해 소폭 상승함. 또한, Nvidia는 인텔(-2.9%)을 대신하여 Dow Jones 산업지수에 편입되었으며, AI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반면, 아마존(-1.1%)은 미국 규제 당국이 원자력 발전 관련 거래를 거부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했으며, 원자력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테슬라(-2.5%)는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과 엘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짐. 반면, Peloton(+3.6%)은 새로운 CEO의 부임과 Bank of America의 주식 상향 조정으로 주가가 상승함. 특히 비용 효율화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음. Viking Therapeutics(-13%)는 비만 치료제 시험 결과가 경쟁사에 뒤지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함. 일라이 릴리(-1.6%) 또한 치료제 경쟁 심화와 관련하여 약세를 보였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협력을 통한 알츠하이머 치료를 진행하고 있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29으로 전일 대비 하락했음. 이는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가 대선에서 우세를 보이며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에 반응하며, 시장에서 트럼프 지지 무역 포지션의 철회가 이어진 결과임.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103.92로 소폭 하락했고,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음. 이는 대선 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임. 상품 시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 WTI 원유가격은 하루 동안 3.2% 상승한 71.47달러를 기록했으며, 브렌트유도 3.0% 상승하여 75.08달러로 마감함. 이는 공급 부족 우려와 더불어 에너지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반영한 것임. 천연가스도 4.6% 오른 2.78달러로, 주요 에너지 상품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음. 금은 0.12% 하락한 2746.2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체 투자로서의 금의 매력에 유지된 결과라 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채권과 통화 시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정책 기대에 의해 혼조세를, 상품시장은 에너지 가격 강세에 의해 명확한 오름세를 보였음.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S&P500 (SPY)	-0.2	배당성장 (SCHD)	+0.1
S&P500 동일가중 (RSP)	+0.1	미 국채 (AGG)	+0.4
나스닥100 (QQQ)	-0.3	미 장기 국채3X (TMF)	+4.5
다우 (DIA)	-0.6	매그니피센트 7 (MAGS)	-0.8
대형성장 (MGK)	-0.3	인공지능 (AIQ)	0.0
소형주 (IWM)	+0.5	메타버스 (METV)	-1.0
인도 (INDA)	-1.0	클라우드 (CLOU)	+1.5
중국 (FXI)	+0.6	2차 전지 (LIT)	+0.5
반도체 (SOXX)	-0.6	로봇 (BOTZ)	+0.3
부동산/리츠 (VNQ)	+1.1	방위산업 (SHLD)	-0.6
헬스케어 (XLV)	-0.6	스마트 그리드 (GRID)	-0.2
항공 (JETS)	-1.3	미국 인프라 (PAVE)	-0.1
소프트웨어 (IGV)	-0.0	친환경 (ICLN)	+2.3
바이오테크 (XBI)	-0.1	우라늄 (URA)	+0.4

US Sector Index

S&P 500	종가	D-1(%)	D-5(%)	D-20(%)
에너지	688.9	+1.9	+0.4	-4.1
부동산	271.0	+1.1	-2.2	-0.8
소재	587.8	+0.5	-1.5	-1.9
필수소비재	863.5	+0.3	-1.1	-1.1
IT	4,381.1	-0.1	-3.3	+0.0
산업재	1,131.3	-0.1	-1.4	-1.3
경기소비재	1,608.4	-0.6	-0.3	+1.2
헬스케어	1,709.9	-0.7	-1.4	-3.3
금융	768.8	-0.7	-2.0	+1.2
커뮤니케이션	317.1	-0.9	-0.1	-0.6
유틸리티	391.9	-1.2	-4.7	-5.1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및 지수	종가	D-1(%)	D-5(%)
WTI	71.5	+3.2	+6.4	달러인덱스	103.92	-0.4	-0.4
Brent	75.1	+3.0	+6.1	유로/달러	1.0875	+0.4	+0.6
미국 천연가스	2.8	+4.6	-2.7	달러/엔	152.18	-0.5	-0.7
석탄	120.2	+0.3	-1.2	달러/역외위안	7.1114	-0.3	-0.5
금	2,746.2	-0.1	-0.4	달러/원(NDF)	1,373.1	-0.4	-0.6
은	32.6	+0.6	-1.1	비트코인	67,466	-2.4	-7.4
구리	9,676.0	+1.1	+1.4	이더리움	2,418	-2.0	-9.7
알루미늄	3,033.5	-1.2	-3.4	나스닥 크립토	3,348	-2.9	-4.5
밀	568.8	+0.3	+1.9	CRB 상품 (11/4)	333.57	+0.0	+0.7
대두	997.3	+0.4	+1.1	LME 금속 (11/1)	4,162	+0.6	-1.0
소고기	185.1	-0.5	-2.2	발틱 건화물 운임	1,374	-0.3	-2.2
돼지고기	83.2	-1.1	+3.2	컨테이너 운임(주간)	3,213	-478	-2,59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주요 스프레드	종가(%)	D-1(bp)	D-5(bp)
미국	4.29	-8.9	+1.3	미 국채 10-2년	11.8	-5.4	-2.0
한국	3.10	+0.5	-3.2	미-한 국채 10년	120.0	-9.4	+6.6
일본	0.95	휴장	-3.0	미-일 국채 10년	334.4	-8.9	+7.1
독일	2.40	-1.0	+10.9	프-독 국채 10년	74.6	-0.012	+0.00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주: 컨테이너 운임(주간)은 1M, 3M 대비 등락폭 기준, 괄호 안은 기준 날짜.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금융투자분석사가 공표한 자료입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